

# 지역연구의 본령 찾기

한 영 혜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요 몇 년 사이에 해외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우선 지역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아직은 연구자 층도 얇고 연구 성과도 미미하지만, 지역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연구 주제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90년대 들어 해외 지역연구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신설, 강화된 점도 이런 추세에 일조하였다. 연구비 지원의 증대로 연구여건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지만(해외 지역연구의 경우, 특히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연구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지역연구에 연구비가 비교적 잘 나온다니까, 뚜렷한 문제의식

이나 연구 수행에 바탕이 되는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급조하여 해외 지역연구 대열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낙관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양적 증대는 연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감수해도 좋다고 본다. 또 지역연구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간 교류를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여 우리 학계 또는 학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따지기에 앞서(물론 문제점들은 짚어보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역연구의 이념이

랄까, 방향을 명확히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보다도 일본학과 교수로서 대학의 지역학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근년 여러 대학에 '일본학과',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등의 이른바 '지역학과'들이 신설되었고, 지역전문가 또는 국제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국제(통상)대학원'(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학과'들은 학과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확립하고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초창기여서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교재준비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 모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학과의 이념이나 교육 목표는 더욱 선명하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역학과들이 대체로 내거는 교육 목표는 '지역전문가의 양성'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역학과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학과 교수들이 자신을 갖지 못하고,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말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서 내보낸다'는 소극적인 목표로 후퇴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지역학과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 수도 있는 목표이다.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라

면 어문계열 학과가 담당해온 영역이어서, 굳이 '어문학과'와는 다른 '지역학과'를 세워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네이티브 스피커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학원들이 많이 생겨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어학 교육이 학교 밖에서 가능해진 요즘, 지역학과가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지역학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다.

흔히 '지역학과'와 대비되어 '어문학과'라고 불리는 어문계열 학과들도 최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체감의 위기를 느낀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문계열 학과가 '지역연구' 전공자를 채용하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위기의식의 표출일 것이다. 사실 외국어문학은 지역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언어와 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 외국어문계열 학과들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는 학과로 이해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역학과'와 '어문학과'로 학과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역학적인 요소'와 '방법으로서의 외국어'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지역연구 또는 지역학과의 본령은 분명 전자일 터인데, 우리의 대학 교육은 후자에 압도되어 전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생의 취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지역연구의 새로운 상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 생각된다.

지역연구는 본래 선진국들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라는,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인간의 삶의 양상을 이해하고 국가를 넘어서는 인간의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사상적 조류를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급속한 지구화의 진전이 국가간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세계화' 전략은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갖추기로 집약되지만, 또 이것이 오늘날 지역연구가 새롭게 부상

하기에 이른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지만, 경쟁 체제에 떠밀려가지만 말고 잠시 멈추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연구 및 지역학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다. 오늘날 지역학과가 양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문가'란 과연 무엇인가? ▲

---

한영혜/서울대 사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 일본 쓰쿠바 대학 사회과학연구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쓰쿠바 대학, 서울대, 성심여대 강사를 거쳐 현재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 연대와 사회교육", "볼룬티어 운동과 시민참가의 의미", "이상백과 근대체육-식민지시대 지식인의 자아실현과 민족적 아이덴티티"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